

혜국 스님(금봉선원장)
'약한 빈대' 대하듯
북한을 사랑하라
8면


#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0월 15일) · 주간

제1072호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으면
먼저 마음의 번뇌를 없애라.
번뇌는 몸을 해치는 근본이다.

# 조계종 법인관리법 근간 흔들리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종단 관련 법인들을 관리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 의 운영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법인 권한 침해 금지 조항의 단서 조항 삽입이 일선 법인들의 의견 조율 없이 개정됐고,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권리제한 조치는 다시 유예됐다. 법인 관리 행정의 법 질서를 스스로 지키지 않아 원칙 없이 표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은 11월 16일로 일부 개정한 법인관리법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 제204차 중앙종회 정기회서 통과된 법이다. 하지만 개정법 일부 사안에 법인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의 권한 침해 금지' 를 골자로 한 제6조다. '필요에 따라 종단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단서조항이 붙었기 때문이다. 즉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종단의 침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종단에 등록한 A법인의 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 '필요에 따라' 의 문구는 매우 광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법인 권한 침해 금지 조항에 단서를 다는 것은 종단과 법인 간의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6조의 단서조항 삽입은 일선 법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진 후에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인관리법 제24조 2항에는 '총무부장은 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해 현재 조계종 총무부는 사찰 법인, 사찰보유법인 등 부문별 대표 법인 9곳을

**6조 단서조항 개정 논란**
**법인 권한 침해 우려 제기**
**法 개정시 협의 명시해도**
**협의기구 회의 한번도 없어**

**선학원 권리제한 해제 조치**
**法 형평성 · 절차 모두 어긋나**

선별해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의기구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총무부 관계자는 "총무원 자체 발의가 아닌 중앙종회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이뤄진 것이어서 협의 기구를 통해 논의할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법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며 총무원 발의를 통한 법 개정이라면 마땅히 협의기구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그는 "법인 소속 사찰의 불사 인허가 등에 조계종 소속 사찰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종단서 이를 증명할 서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가 있어 악용이 우려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단 합의' 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의 이런 주장에도 여전히 법 개정 절차상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는다. 의원 입법 발의의 경우 협의기구가 작동하지 않아 법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어렵기 때문이다. 애써 구성된 협의기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을 위한 협의기구가 총무원-법인-중앙종회 삼자간 형태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종회의원 스님은 "이번에 개정한 법인관리법은 총무원에서 위원회에 입법 청원한 것을 취합 · 심사해 위원회가 발의한 것"이라면서 "현재 지적한 단서조항의 미비점이 나타나면 총무원이나 중앙종회서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이 11월 17일 공고한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및 관련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해제' 도 법인관리법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계종은 권리제한 해제 공고에서 △승려복지 혜택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종단 장학 혜택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유예함을 밝혔다.

사실 이 같은 공고는 초법적인 조치로 종법 질서는 물론 법인 간 형평성 문제 역시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다.

법인 관련 변호사는 "조계종과 선학원과의 관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조치였다면 지난 종회서 한시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아 법을 개정했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나오면 미등록 법인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유예 조치를 종령으로 정한다고 해도 종법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선학원은 조계종 관련 법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먼저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제재 조치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자는 것이다. 법에 묶여서 선학원을 놓칠 수 없다. 어떤 것이 종단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 신성민 기자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교구본사-군법당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 교구본사, 군포교 1:1 지원 나선다

**조계종 본사주지협, 16일 지역 상급부대와 자매결연**

**예하부대 포함 군법당에**
**불사 지원 · 위문 등 추진**

국가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신심을 키워나가고 있는 군장병들을 위해 전국 교구본사가 군포교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우송)는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교구본사-군법당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회의에는 교구본사주지 25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각 교구본사는 지역에 위치한 사령부 및 군사학교 등의 상급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예하부대를 포함한 군법당에 불사 및 주요 법회 · 위문품 보내기 · 장병 위문 등을 지원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각 군법당은 지역사찰 현안 사항 유기적 협조 및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참석 · 군악대 지원 등을 하게 된다.

회의에서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군종교구에서 핫팩 전달 및 GOP · GP 근무자를 위한 북카페 조성, 자장면 지원 등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각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군부대와 MOU를 체결하면 군포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서 서명 이후 회장 우송 스님과 차기회장 정념 스님은 "본사가 앞장서 군포교에 힘쓰자"며 각 본사 주지스님들에게 군불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협의회 차기 집행부로는 수석부회장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차석 부회장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총무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재무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이 선임됐다. 차기 회의는 내년 1월 26일 해남 대흥사에서 개최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 중단돼야"

**불교계, 파리 연쇄 테러 희생자 애도 잇달아**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에 대해 애도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11월 16일 대변인 일감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논평문을 통해 파리 테러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기원하고 테러 중단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논평문에서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을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테러로 희생당한 이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은 "테러 행위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그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인류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공동체이다. 내가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남을 먼저 평화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인륜적인 테러와 폭력,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공존으로 차별과 배타를 존중과 상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태종은 11월 16일 종단 대변인 월도 스님(총무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파리 연쇄 테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천태종은 "지구촌 평화와 행복은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인류가 함께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지켜야 한다"강조하면서 "반인륜적 테러 규탄 열기가 높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50만 종도의 마음을 모아 추모 촛불을 밝힌다"고 말했다.

법보종찰 해인사도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을 비롯한 총무국장 법연 스님, 재무국장 도현 스님, 호법국장 본오 스님은 11월 16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방문해 파비앙 페논 대사에게 테러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향적 스님은 "프랑스 가톨릭 수도원 베에르-끼-비에서의 수행인연으로 각별히 여기는 프랑스여서 더욱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유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뜻을, 부상자에게는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일 · 신성민 기자

#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 무산 스님 선출

**원로회의 11월 16일 회의서 만장일치 결의**

**청담문도회장 혜성 스님**
**대종사 특별전형 동의도**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종립 기본선원 조실 무산 오현 스님이 선출됐다.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50차 회의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고산 스님의 후임에 무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무산 스님은 지난 11월 5일 중앙종회 제204차 정기회에서 차기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바 있다.

무산 스님은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직지사에서 성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 · 11대 중앙종회의원과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계림사, 해운사, 봉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신흥사 조실이자 조계종 종립 기본선원 조실을 맡고 있다.

원로회의는 또 이날 청담문도회장 혜성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의 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무산 오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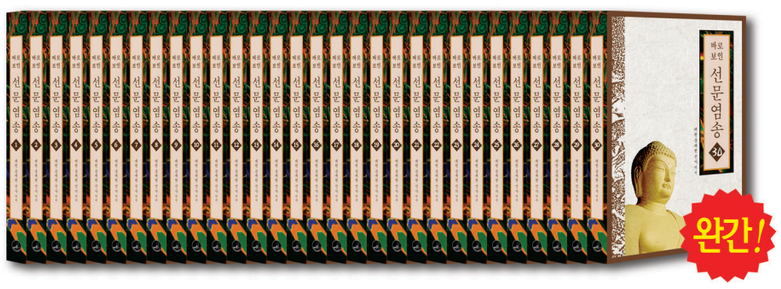


혜성 스님

혜성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 조계사에서 청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2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3 · 4 · 5 · 9 · 10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사회부장, 도선사, 호국지장사,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서 - 74권 36종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법성게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 3개국어판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 3개국어판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화두 3개국어판 / 바로보인 간당론 /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바로보인 유마경 / 실증설 5개국어판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3개국어판